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7년 8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이창래의 『제스처 라이프』에 나타난 제국주의와 젠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정 수 지

이창래의 『제스처 라이프』에 나타난 제국주의와 젠더

Imperialism and Gender in Chang-rae Lee's
A Gesture Life

2017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정수지

이창래의 『제스처 라이프』에 나타난 제국주의와 젠더

지도교수 이 정 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정 수 지

정수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임 경 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차 희 정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정 화 (인)

2017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2
I. 서론	3
II. 제국주의와 남성중심주의: 하타와 끝애	7
III.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부장과 딸	16
IV. 오리엔탈리즘과 남성성: 아시아계 미국 남성과 백인 여성	27
V. 결론	38
인용문헌	40

ABSTRACT

Imperialism and Gender in Chang-rae Lee's *A Gesture Life*

Su Jee Jung

Advisor : Prof. Jung-Hwa Lee Ph.D.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imperialism and gender as deeply related issues in *A Gesture Life* by Chang-Lae Lee. *A Gesture Life* suggests that race and gender are inextricably related issues through Hata's relationships with three female characters, Kkutaeh, Sunny, and Mary Burns. The chapter II examines Hata's Japanese imperialism and masculinity focusing on his relationship with Kkutaeh. Then I critically discuss Hata's racial prejudice and patriarchal attitude that become visible in his relationship with Sunny. The chapter IV demonstrates that Hata's relationship with Mary Burns, a white woman, suggests that he has internalized white supremacy and orientalism. In conclusion, the three female characters expose Hata's racial and gender ideology by forming differently expressed power relationships with him.

I. 서론

한국국민이라면 누구나 ‘위안부’의 뜻을 알 만큼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가 되어서야 국내에서 위안부에 관한 한일협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김영희 29). 현실에서 위안부 문제가 점차 수면위로 떠오르며 위안부 여성들의 실상을 밝히고 그들을 기억하는 노력이 진행되는 동안, 위안부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도 국내외 작가들에 의해서 집필되었다. 위안부 문제를 다룬 한국계 미국 문학작품 중 잘 알려진 소설로는 노라 옥자 켈러(Nora Okja Keller)의 『중군위안부』(*Comfort Woman*)(1997)와 이창래(Chang-rae Lee)의 『제스처 라이프』(*A Gesture Life*)(1999)가 있다.

『중군위안부』가 위안부 여성의 시점으로 서술되는 것과 달리, 『제스처 라이프』는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었던 남성, 즉 가해자의 시점을 취하고 있다. 켈러의 『중군위안부』에서는 주인공인 위안부 여성 아키코(Akiko)의 시점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간 이하 취급을 당하며 성을 착취당했던 참상을 고발한다. 켈러가 위안부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것과 달리, 이창래는 『제스처 라이프』에서 한국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입양되고 이후 미국으로 이주한 남성 프랭클린 하타(Franklin Hata)를 주인공이자 서술자로 삼는다. 결과적으로, 『제스처 라이프』에서 위안부로 등장하는 여성 인물인 끝애(Kkutaeh)는 오로지 하타의 기억을 통해서만 재현된다.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소속이었던 아시아계 미국 남성인 하타의 기억은 일본 제국주의와 오리엔탈리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그의 인종 의식은 젠더(gender) 이데올로기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하타의 일인칭 서술로 전개되는 『제스처 라이프』는 위안부에게 가해진 참상을 고발하는 것을 넘어 인종과 젠더가 어떻게 중첩되어 정체성을 결정하는지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창래의 『제스처 라이프』에 나타난 제국주의와 젠더를 중첩된 문제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이 논문은 세 명의 여성 인물인 끝애, 서니(Sunny), 메리 번스(Mary Burns)가 어떻게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하타의 제국주의적 사고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지를 집중적으로 알아보하고자 한다. 『중군위안부』의 주인공이 위안부 여성이라는 점과 달리, 주인공인 하타는 한국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입양되어 미국에 정착한 다중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민족 정체성에 따라 제국주의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를 모두 지니는데, 이 논문

에서는 이런 양가적 위치가 세 명의 주요 여성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표출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김혁에 따르면, 제국주의란 “일국의 정치적·경제적 지배권을 다른 민족·국가의 영토로 확대시키려는 국가의 충동이나 정책을 의미한다”(5). 간단히 말하자면, 제국주의는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착취하는 것”(김혁 6)이다. 동양에 대한 서구 열강의 지배를 정당화하는데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 오랫동안 동원되었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에 따르면, “오리엔탈리즘이란 서양이 동양에 관계하는 방식으로서, 유럽 서양인의 경험 속에 동양이 차지하는 특별한 지위에 근거하는 것”(15)이며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억압하기 위한 서양의 방식이다”(18). 즉, 오리엔탈리즘은 서양 예술과 학문 속에 자리 잡은 동양에 대한 허구적인 이미지로서 동양에 대한 서양의 왜곡된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발레리 케네디(Valerie Kennedy)가 설명하는 것처럼,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이 “서양과 동양 사이에 존재해 온 수직적인 이분법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65). 사이드의 분석에 의하면, 오리엔탈리스트는 서양인은 “합리적·평화적·자유주의적·논리적”(96)이지만 동양인들은 “그러한 것들이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96)고 강변한다. 오리엔탈리즘을 유포하는 예술은 서양의 이미지를 남성적이고 우월하며 능동적인 지배자의 모습으로 표상하는 반면 동양의 이미지를 여성적이고 야만적이며 열등한 피지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내 왔다. 그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적 공상을 자극하는 오리엔탈리즘에서 유색인종은 백인의 타자로서, 여성은 남성의 타자로서 기능하는 기본구조”(임진희 198)를 갖는다. 오리엔탈리즘을 내면화한 주체는 젠더화되고(gendered) 차별적인 동서양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동양을 미개하고 지배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양인들은 차별적인 시선으로 서양-남성적, 동양-여성적이라는 제국주의와 젠더가 결합한 동서양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구축해왔다. 젠더란 생물학적 성(sex)과 구별되는 개념인데, “성 역할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후천적으로 결정되는 성 개념으로 남성다움(남성성)과 여성다움(여성성)으로 구분한다”(박찬구 79). 대다수 사회에서 남성은 남자답도록 여성은 여자답게 행동하도록 사회에 의해 강요되며, 이러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는 차별적인 젠더 이미지의 바탕을 이룬다. 오리엔탈리즘은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 수동적이고 열등하므로 능동적이고 우월한 남성의 지배를 받아 마땅한 존재로 여겨져 온 여성의 이미지를 동양의 이미지와 겹쳐 놓는다. 오리엔탈리즘을 내면화한 서양은 동양을 여성적 공간

으로 상상함으로써 스스로 능동적이고 우월한 지배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동양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해 온 것이다.

『제스처 라이프』의 주인공인 하타는 아시아계 미국 남성으로 아시아 여성인 끝애와, 아시아계와 아프리카계 혼혈인 서니, 백인 여성인 메리 번스를 대할 때 젠더와 인종 정체성이 각각 다르게 표출되며, 이를 통해 젠더와 인종의 중첩성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일본 문화에서 성장한 하타는 한국 위안부 여성 끝애와 대면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일본 남성으로 스스로를 위치시킨다. 끝애와 하타는 둘 다 한국 태생이지만 하타는 자신을 일본인과 동일시하고 한국 여성인 끝애에 대해 지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타가 입양한 한국계 혼혈인 서니와의 관계에서도 하타는 동양 여성이자 흑인 혼혈인 그녀를 지배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끝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지배-피지배의 구도를 유지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가 미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미국 베들리 런(Bedly Run)에서 만난 백인 여성 메리 번스와의 관계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리엔탈리즘을 내면화한 하타는 메리 번스에게는 문화적으로 여성적이고 동양적인 특질로 여겨져 온 수동성을 드러낸다.

이제까지 많은 선행연구들은 정체성과 패싱(passing)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 『제스처 라이프』를 연구해 왔다. 예컨대, 박보량은 『『제스처 라이프』(A Gesture Life): 이민사회 속에서의 하타의 정체성 모색』에서 하타가 다른 문화에서 정체성을 찾는 과정과 정체성을 수용하는 과정을 고찰한다. 특히 박보량은 “두 문화와 두 삶 속에 사로잡혀 있는 하타”(130)의 정체성 탐구의 어려움을 분석하며 “지배문화 속에서 억압된 피지배자로”(131) 지배자와 지배문화에 동일시되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의 “정체성 회복의 문제점”(131)에 대해 논한다. 한편, 고양성과 노종진은 하타의 정체성 갈등을 통한 “존재에 대한 내면의 성찰”(154)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154)에 관해 연구한다. 이선주는 「이창래의 『제스처 인생』—패싱, 동화와 디아스포라」에서 하타가 일본인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과정과 미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 백인 문화로 동화되는 과정을 패싱으로 분석한다. 안아람은 「이창래의 『제스처 인생』에 나타난 인종적 패싱과 트라우마」에서 “패싱의 과정으로 구성된 하타의 초국가적 정체성”(139-40)에 관해 논하며 그가 기존의 삶, 즉 제스처 라이프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 가능성의 주체로 거듭난다는”(153)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안아람은 이 소설을 트라우마 고백서사로 고찰하여 이 소설이 “자기회고라는 고백서사를 통한 트라우마 극복 과

정”(140)을 보여준다고 본다. 이소희 또한 「『제스처 인생』에 나타난 젠더화된 트라우마」에서 트라우마를 주제로 연구하면서, 하타의 기억을 통한 일인칭 서사 진행이 젠더화된 트라우마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들과 달리, 하타의 모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두드러지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조안 장(Joan C. H. Chang)은 「『제스처 라이프』: 전 지구적 맥락에서 모범적 소수민족 콤플렉스 검토하기」(“*A Gesture Life: Reviewing the Model Minority Complex in a Global Context*”)에서 ‘모범적 소수민족 콤플렉스’(model minority complex)라는 개념을 사용해 하타의 제스처 라이프를 비판한다. 이 논문에서 장은 백인 주류사회에 소속되려는 열망의 결과인 하타의 제스처 라이프를 ‘모범적 소수민족 콤플렉스’의 표현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앞선 연구들은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하타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여성 인물들의 중요성을 충분히 부각시키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점에서, 하타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 세 명의 여성인물인 끝애, 서니, 메리 번스와 하타의 행동을 비교하여 하타 내면의 오리엔탈리즘을 분석한 이수미의 「재미교포 작가의 위안부 소설에 드러난 오리엔탈리즘—이창래의 『제스처 인생』을 중심으로」는 주목할 만한 연구이다. 유사하게, 이영옥은 「성 노예 모티프와 『제스처 인생』에서 중군 위안부 제도와 끝애와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하타의 젠더 이데올로기와 인종주의를 고찰하고 있다. 이 논문은 여성 인물들의 중요성에 주의를 기울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제스처 라이프』에 등장하는 세 명의 여성인물과의 관계를 통해 하타의 제국주의와 젠더가 어떻게 서로 연관된 것으로 표출되는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본론의 첫 장에서는 끝애와 하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타의 일본 제국주의와 남성 중심주의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서니와 하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하타의 인종적 우월감과 가부장적 모습에 대해 논의한다. 본론의 마지막 장에서는 메리 번스와 하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하타의 위축된 남성성과 오리엔탈리즘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II. 제국주의와 남성중심주의: 하타와 끝애

『제스처 라이프』에 등장하는 끝애는 하타가 일본군 신분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때 버마에서 만난 한국인 위안부 여성이다. 그녀는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부분이 많은 인물은 아니지만 하타의 인생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인물이다.

끝애는 하타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한국 출신이지만 일본으로 입양되어 일본 문화에서 성장한 하타와는 달리 그녀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확신을 갖고 있으며 하타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준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그녀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면모를 보이며 매 순간 일본에 동화되기 위하여 수동적이며 주체성이 없는 하타와는 반대의 성격이다. 그녀는 양반 집안에서 성장하였고 유교 문화가 지배하는 당시 한국 사회에서도 곳곳이 배우고자 노력하고 많은 서적들을 읽으며 교양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남동생의 징집을 피할 수 없자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와 그녀의 언니를 일본군에게 넘기고 결국은 위안부 신분으로 일본군 초소에 끌려오게 된다. 이처럼 그녀는 유교 사상과 가부장제 아래에 노출된 여성이지만 주체성과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성으로, 하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끝애를 만나기 전 하타는 일본에 대해 다소 강박적인 국가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그의 출신 때문이었다. 하타는 어린 시절 갖바치와 녀마주이 부모 밑에서 태어난 가난한 출신의 한국인으로, 후에 일본의 부유한 의사집안인 구로 하타(Kuro Hata) 가문으로 입양된다. 그는 일본으로의 입양을 자신 “인생의 진정한 출발점”(72)으로 본다고 언급하며 그것을 지위 향상으로 여긴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향상해준 원인을 일본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인다.¹⁾

나는 나를 낳아 준 부모를 따뜻한 마음으로 생각하듯 키워 준 그들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그러나 둘 가운데 어느 부모에 대해서도 그들이 나를 길러 주었다는 말을 하지 못하겠다. 나를 길러 준 것은 목적을 가진 사회였고, 그 외에 아무것도, 다른 누구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고마울 따름이었

1) 본 논문에 사용된 *A Gesture Life*의 우리말 번역은 정영목의 번역판 『제스처 라이프』를 따른다.

다. 나는 불과 열두 살의 소년이였음에도 늘 사회의 불침번으로서 나 자신을 바쳐야 한다는 것, 내가 알 수 있거나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사회에 의탁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I think of them most warmly, as I do my natural parents, but to neither would I ascribe the business of having reared me, for it seems clear that it was the purposeful society that did so, and really nothing and no one else. I was more than grateful. And I knew even then as a boy of twelve how I should always give myself over to its vigilance, entrusting to its care everything I could know or ever hope for. (72-73)

하타는 자신의 지위를 향상해주고 자신을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일본 사회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이런 감사함은 다소 강박적인 모습으로 국가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표출되며 이런 강박적인 국가에는 그를 일본군으로 복무하며 전쟁에 참여하도록 만든다.

일본군대에 입대하여 전쟁한 참전한 그는 일본 제국주의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오노 대위의 생체실험에서 나타난다. 벼마인 구두 수선공이 보급품을 보관하는 천막에서 도둑질하다 참수형을 선고받자 군의관이자 그의 상관인 오노 대위는 그를 참수형에 처하는 대신 교육적인 목적으로 그를 실험에 사용한다. 오노 대위는 완벽히 마취하지 않은 상태로 그의 가슴을 갈라 심장을 가지고 응급처치라는 명목으로 인체실험을 하다 그를 죽인다. 하타는 이 모습을 “마술 같은 광경”(76)이었으며 자신의 눈에는 그것이 그 어느 응급조치보다 “학구적인 것”(76)으로 보였다고 묘사한다. 잔혹한 인체실험을 목격했음에도 그런 모습을 ‘마술 같은 광경’이라 표현한 것은 그가 일본 제국주의를 수용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가 주입되었다는 또 다른 암시는 한국인 위안부에 대한 그의 인식에서도 드러난다. 부대에 한국인 지원자(위안부)들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된 하타는 “야전에서 뛰는 장교와 보병의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젊은 여자들의 도움을 얻는다는 논리”(163)를 인정하며, 그것이 그저 “전시의 전방부대에 내려오는 수많은 행동 명령과 통지 가운데 하나일 뿐”(163)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하타는 한국 여성들의 성을 지배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일본의 위안부 논리를 인정하며

그것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안부 제도를 인정하는 그의 모습은 일본 제국주의 사상이 깊게 내면화된 하타의 모습을 부각한다. 또한, 그는 다른 일본군처럼 위안부를 인격체가 아닌 물건으로 취급한다.

여자들은 멀리 시모노세키로부터 필리핀을 경유해 왔다는 소문이였다. 원래 둘이 더 있었는데, 여드레 동안 배를 타고 오는 동안에 ‘잃어버려’, 이제는 셋이였다.

It was said the four girls were shipped all the way from Shimonoseki, via the Philippines, and that in fact two others had been "lost" during the lengthy sea passage. (110)

하타가 위안부 여성의 목숨을 “잃어버렸다”고 묘사한 것에서 드러나듯, 그는 그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지 않고 있다. 나영균에 따르면, 하타의 생각은 “황국 신민(皇國臣民)의 진충보국(盡忠報國)이라는 정치적 캐치프레이즈와 일치하는 것이다”(116). 다시 말해서, 일본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를 내재화하고, 위안부에 대한 시선을 통해 그의 내재화된 제국주의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처럼 하타는 일본에 대한 충성심과 강박적인 국가애로 인하여 일본인으로서 동화되기를 갈망하고, 그러한 갈망으로 인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완전히 내재한 모습을 보인다.

일본 제국주의를 수용한 하타에게 끝내는 한국말을 건네고 그의 한국 이름을 물어봄으로써, 입양 이후 잊고 지냈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기시킨다. 일본에 대한 충성심은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부정하게 하였지만 그녀의 갑작스러운 한국어 질문에 그는 무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인다(235). 이처럼 끝으로 인해 그는 그토록 부정했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얻으며, 의식적으로 잊고 지냈던 정체성을 느낀다. 즉, “본래의 정체성에 대한 향수”(199)를 느끼는 것이다(이영옥 199). 하타와 끝내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그녀로 인해 하타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갖는다. 제국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그는 제국주의의 불합리함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갖바치와 녀마주이 사이의 외아들인 나는 제국 군대 해천 대대의 소위 군복을 입게 되었다. 귀족적이고 학자적인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머나

먼 전초 기지의 보급 물자 창고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녀의 언니는 이미 죽어 땅에 묻혔고, 그녀 자신도 똑같이 무시무시한 결말을 바라고 있었다. 이 또한 어울리지 않는 일로 여겨졌다.

And it seemed incongruous, as well, how it was that I, the only child of a hide tanner and a rag maid, should come to wear a second lieutenant's uniform of the Ocean Sky Battalion of the Imperial Forces, and that she, born into a noble, scholarly house (if perhaps one fallen), would have to sleep in a surplus closet of a far-flung military outpost, her sister already dead and buried, wishing upon herself the same horrid end. (257)

하타는 제국주의가 자신들의 위치를 바꾸어 놓았음을 느낀다. 이영옥에 따르면, 하타는 “각자를 각자의 분수에 맞추어 취급하고 이해하는 법에 견지해서 일본 군대의 위안부제도를 정당화”(195) 했었으며, 위안부 여성들은 “자기들 수준에 맞는 대우”(196)를 받는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하타는 갖바치와 녀마주이의 한국인 부모 밑에서 자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끝애의 아버지는 일본 사절단으로 파견될 만큼 학식이 깊었으며, 끝애의 집안은 권위 있는 집안이었다. 하타는 끝애 같은 한국인들을 접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257). 이처럼 하타는 일본으로 입양되지 않았다면 결코 만날 기회가 없었을 끝애를 감독이라는 명목으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다. 그는 그러한 상황을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 생각하며 끝애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하타가 제국주의가 경제, 사회적 지위의 위계를 흔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일본군인과 위안부로 나타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양상으로 그녀를 만난 상황을 제국주의의 부조리함으로 느낀 것이다. 끝애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집안, 사회적으로는 권위 있는 집안의 여성이다. 따라서 경제,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가문의 자제인 그녀가 위안부가 되고 가난하고 미천한 출신인 자신이 지배자의 위치가 된 아이러니한 상황의 원인을 제국주의라고 생각하고 이를 계기로 제국주의의 부조리함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부조리함을 인지하며, 제국주의에 대한 그의 무조건적인 충성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하타는 그녀가 자신의 남동생 징집을 피하기 위해 친언니와 함께 위안부 수용소

로 끌려왔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기슴을 당한 듯한 느낌”(250)을 받는다. 위안부 여성들이 그녀들이 지원해서 왔을 것이라는 점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자신의 지배자적 생각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한 병사가 위안부를 낮추어 부르는 ‘조센삐’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그 단어를 듣고 그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

물론 나는 그 여자들을 짐승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그때 내 시야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했다고 말할 수도 없겠다. 내 생각은 부자의 생각과 비슷했을 것이다. 자기 집이나 소유지에서 일하는 수많은 하인들을, 그들의 노력과 몸부림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부자. 그들을 그의 삶이라는 메커니즘의 부품으로만, 매일 밤낮없이 꾸준히 돌아가는 기계로만 보는 부자.

I certainly did not think of the other girls as animals, and yet I cannot say they held any sort of position in my regard; Perhaps my thinking was as a rich man's, who might hardly acknowledge the many servants working about his house or on the property, their efforts and struggles, and see them only as parts of the larger mechanism of his living, the steady machine that grinds along each night and day. (251)

나영균은 이를 “정신대라는 추상명사로 표현되던 소녀가 하나의 인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것”(116)이라 언급한다. 또한, 이는 하타가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을 부각한다. 그리고 제국주의의 부조리함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 또한 여느 일본군처럼 위안부 여성들을 여성이라는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단지 성욕을 채우는 도구로 여기며 위안부 제도를 방관했을 것임을 나타낸다. 하지만 끝으로 인해 인식의 변화가 생긴 그는 ‘조센삐’라는 위안부를 비하하는 단어를 쓰는 병사를 보자 그 병사를 찾아 그에게 해명을 요구하기까지 한다. 그가 처음으로 피지배자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끝으로 인해 제국주의에 대해 비판적 생각을 갖은 하타는 그녀를 오노 대위의 감독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와 대치한다. 버마인 구두 수선공의 인체실험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오노 대위는 일본 제국주의가 철저히 내면화된 인물로 일본 제국주

의를 표상한다. 하타는 그를 동경해왔고 그에 대한 동경은 곧 제국주의에 대한 동경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노 대위와의 대치는 곧 제국주의에 대한 불복종을 뜻하고 그것에 대해 저항하는 그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무비관적으로 제국주의를 수용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인 셈이다.

하타와 오노 대위의 대치 중, 끝애는 오노 대위를 살해한다. 하타는 대위의 죽음을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하여 오노 대위를 총으로 쏘아 끝애를 도와준다. 곧 들이닥친 보초에게 그녀는 반항하고 결국 끌려가게 된다. 끌려간 끝애를 생각하며 하타는 그녀의 죽여 달라는 청을 들어주어야 할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진다. 쉹(Cheng)에 따르면, “불쌍히 여겨 자신을 죽여 달라는 K의 호소는 그의 인간성에 딜레마를 제기한 것만이 아니라 그의 민족적 국가적 충성에 대해서 딜레마를 야기한 것”이다(이선주 248 재인용). 그녀를 죽이는 것은 일본군대에 대한 반항이자 제국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불복종을 뜻한다. 그리고 하타는 만약 자신이 그녀를 죽인다면 이후 어떤 벌을 받을지 알고 있다. 그는 이전에 끝애의 친언니를 엔도 상병이 죽이는 모습을 목격했다. 엔도 상병은 사람을 죽였지만, 살인죄가 아닌 부대의 무기나 식량을 훔치거나 약탈한 장병에게 내리는 “군에 대한 반역 행위”(189)로 처벌되어 처형되었다. 만약 자신이 끝애를 죽인다면 자신 또한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로 처벌될 것을 그는 알고 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끝애를 도와줌으로써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그는 내적 갈등에 휩싸인다. 결국, 그는 군법을 어기지 않기로 한다. 이런 그의 결심은 제국주의에 복종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하타가 일본인으로서 안정적인 정체성을 선택하는 것은 제국주의 부조리함에 대해 침묵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끝애가 일본군에게 구타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뜬다. 그는 이전에 엔도 상병이 끝애의 친언니를 살해하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는 “이해관계가 없는 구경꾼처럼 그 장면을 지켜볼 뿐이었다”(187). 엔도 사건처럼 그는 끝애의 상황을 도와주지 않고 침묵하며 “구경꾼, 방조자가 된다”(김미현 18). 이는 그의 제국주의로의 회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타는 제국주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 그는 끝애에 대해 연민과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인해 제국주의에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를 사랑했다는 감정 또한 제국주의를 포장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하타가 그녀와 성관계를 맺을 때 지배자적 모습이 보이는 것에서 나타난다. 그는 자는 끝애의 몸을 어루만지며 끝애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강제적인

성관계를 한다. 당시 하타는 끝애를 처녀라고 생각했었고, 그는 “처녀성이 모든 여자에게 가장 귀중한 보석”(261)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끝애의 허락 없이 그녀와 성관계를 맺어 처녀성을 약탈하는 행위는 위안부 제도를 명목으로 위안부 여성의 성을 억압한 일본군의 모습과 같은 양상이다. 또한, 강제적 성관계를 맺는 하타와 이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끝애의 모습은 지배-피지배 양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하타의 지배자적 면모는 남성 중심주의와 결합하여 끝애의 성을 소유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하타는 “다른 누가 그녀를 가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296)고 고백한다. 끝애의 성을 “가지다”라는 표현은 그가 위안부의 목숨을 “잃어버렸다”(110)고 표현한 것과 오버랩 되며, 그가 끝애의 성을 버릴 수 있는 물건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하타가 다른 병사들처럼 그녀를 도구로 생각했음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것이다. 즉, 하타는 그녀의 성을 탐한 것을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은 다른 병사들처럼 그 또한 위안부 여성의 몸을 성욕을 해소하는 도구로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타의 강제적인 성관계 직후, 그는 끝애가 숨죽여 흐느끼는 것을 보고 자신이 그녀에게 자신의 헌신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우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언급한다. 이는 끝애와의 성관계를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합리화하려고 하였지만, 실은 그가 끝애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배자로 여겨 그런 성관계를 맺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하타의 지배자적 모습이 끝애의 성을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분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끝애는 자신의 성을 소유하려는 하타를 비난한다. 그녀의 비난은 남성 중심주의와 제국주의를 내면화한 하타의 지배자적 면모에 대한 비판이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지만 당신이 정말로 뭘 원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아직 젊고 점잖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드리고 싶어요. 그건 내 섹스예요. 내 섹스라는 물건이에요. 나한테서 그것만 떼어내서 털가죽이나 좋아하는 돌처럼 지니고 다닐 수 있다면 그걸로 끝일 거예요. 당신도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요. 당신한테 내 몸을 준 것이 안타까워요.

You think you love me but what you really want you don't yet know because you are young and decent. But I will tell you now, it is my sex. The thing of my sex. If you cut it from me and keep it with

you like a pelt or favorite stone, that would be all. You are a decent man, Lieutenant, but really you are not any different from the rest. I'm sorry I gave myself to you, not for me but for you. (300)

하타는 끊임없이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끝에는 그의 사랑을 가식이라 느낀다.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은 자신의 몸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또한, 그가 다른 병사들처럼 그녀의 성을 도구로 여기는 것을 비난하며 하타의 사랑이 허구적인 것임을 지적하고, 하타의 남성 중심주의와 제국주의를 비난한다.

지배-피지배 양상에서 지배자를 비난하는 능동적인 그녀의 모습은 제국주의에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하타의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능동적인 끝애의 모습과 그것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수동적인 하타의 모습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전형적인 젠더 스테레오 타입을 파괴한다. 이는 그들의 행동의 비교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끝애는 처음 위안부 초소로 끌려갔을 때, 다른 여성들과 달리 하타를 똑바로 응시한다(182). 일본군인 하타를 응시하는 그녀의 모습은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초소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일본군의 위안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사령관과의 성관계를 피하고자 나무 조각으로 피가 나도록 일부러 손가락을 찌른 후 음부와 허벅지 주위에 바르는 모습을 보인다(243). 이는 제국주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친언니의 죽음에 대해서도 위안소에서 봉사하느니 죽는 것이 차라리 잘된 일이라 한다(246). 또한, 오노 대위가 자신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여겨 자신을 다른 소녀들처럼 대하지 않고 특별히 여기자 이를 언짢게 생각하고, 하타에게 오노 대위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말하며 오노 대위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죽어 버리든가 그를 먼저 죽이고 자신이 죽을 것이라 하며(239) 결국은 오노 대위를 살해하기까지 한다. 이처럼 끝애는 제국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하타는 정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끝애의 도와달라는 청을 끝내 외면하며 그녀의 죽음에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일본군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되는 끝애의 모습을 보며 그저 침묵으로 일관한다. 그리고 그는 끝애의 죽음 이후 일본을 떠났다. 끝애의 죽음에 대한 방관과 일본을 떠나는 것은 모두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침묵이며 그의 수동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하타는 끝애로 인해 변화의 계기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를 적극적으로 비판하지는 못하고 결국은 일본을 떠난다. 남성중심주의와 지배자적 면모

를 가지고 있는 그의 모습은 그가 일본을 떠나 미국 사회에 정착하여 입양한 서니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Ⅲ.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부장과 딸

일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부유한 미국 백인이 거주하는 뉴욕 근교의 베들리 런으로 건너온 하타는 이름을 프랭클린 하타라 바꾸고 그곳에서 미국인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으려 노력한다. 그 결과 하타는 베들리 런에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주민이 된다. 그는 그곳에서 ‘서니 의료 가게’(Sunny Medical Supply)라는 의료품 가게를 운영하며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아시아계 미국인이 된다. 베들리 런에 위치한 “튜더 왕조식 이층집”(16)으로 된 그의 집은 부동산 업자인 리브 크로퍼드(Liv Crawford)도 탐낼 만큼 멋지고 근처에서도 특별한 집으로 꼽히며, “꽃밭과 약초 정원, 널둘을 칸 수영장, 납을 넣은 유리, 단철로 지은 온실까지 갖춘 집”(16)은 베들리 런에서 그의 성공을 증명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성공뿐 아니라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 구성원으로서도 인정받는다. “이곳 사람들은 나를 안다”(1)는 그의 언급에서 느낄 수 있듯, 그는 드디어 미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느낌을 느낀다.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한 그는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하고 서니라는 여자아이를 입양한다.

서니는 한국 부산 출신으로 한국 매춘부와 한국 주둔 미국 병사와의 하룻밤의 만남으로 태어난 여자아이다. 하타는 베들리 런으로 정착한 뒤 그녀를 입양한다. 하타에게 입양된 서니는 처음에는 하타와 좋은 부녀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점차 성장하며 하타의 허울뿐인 제스처 라이프를 비판하며 그와 끊임없이 대립하고 오랜 시간 가출한다. 가출한 서니는 긴 시간 하타와 연락을 끊고 살다 편지를 매개로 그와 만나 화해하며 하타에게 자신의 제스처 라이프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서니는 하타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끝애를 연상시킨다. 그녀는 주체적일 뿐만 아니라 젠더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인종주의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타가 백인 중심주의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고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하타는 서니와의 관계에서 미국 사회에서 비주류인 흑인혼혈에 대한 거부감과 인종차별적 사고를 드러낸다. 하타는 입양 조건으로 일본 여자아이를 원했지만, 입양기관에서 일본 아이를 구하지 못해 “한국 출신”의 7살짜리 여자아이를 입양하고 일본인은 아니지만 여자 아이를 입양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74). 하지만 서니를

처음 본 그는 그녀의 출신에 대해 실망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애가 처음 나에게 왔을 때의 모습을 떠올렸다. 여위고 관절이 불거진 어린아이. 물결치는 술 많은 검정 머리와 거무스름한 피부. 나는 처음에는 실망했다.

[...] 나에게로 오는 아이가 내 생각보다 훨씬 품위 없는 환경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예를 들어, 군인과 술집 여자 사이의 하룻밤 방종한 만남의 산물 같은.

I instantly saw in my mind the picture of her at the age when she first came to me. A skinny, jointy young girl, with thick, wavy black hair and dark-hued skin. I was disappointed initially.

[...] I was over hopeful and naive, and should have known that he or she would likely be the product of a much less dignified circumstance, a night's wanton encounter between a GI and a local bar girl. (204)

또한, 그는 서니를 보고서는 “어떤 다른 색깔 또는 색깔들이 흐르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204)고 언급한다. 하타는 서니의 외형을 보고 그녀가 자신이 생각했던 순수 혈통의 한국인이 아니라 동양 여성과 흑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흑인 혼혈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실망한 것이다. 여기에서 하타의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이 나타난다. 서니에 대한 하타의 거부감은 미국 사회에서 비주류로 여겨졌던 흑인과 흑인혼혈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이는 하타가 베들리 런의 일부가 되고자 노력하는 동안 미국 중상류층의 백인우월주의를 은연중에 내면화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서니에 대한 그의 인종차별은 한국과 일본의 피지배-지배관계와도 연관되어 있다. 하타와 서니 모두 같은 아시아계 인종이지만 하타는 일본으로 입양되어 자라면서 일본문화에서 성장하며 자랐고, 서니는 하타에게 입양되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자랐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한국을 지배했기에 하타의 의식 속에 한국은 여전히 힘없고 열등한 피지배국의 모습이다. 따라서, 일본인의 정체성을 지닌 하타는 한국 국적을 지닌 서니를 무의식적으로 지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서

니를 지배하려는 욕망은 그의 남성 중심주의와 결합하여 가부장적 모습으로 발현된다. 하타는 가부장적인 아버지로 서니를 억압하고 지배한다. 서니는 하타에 의해 서구의 인종차별과 동양의 가부장제, 이 두 가지의 억압을 동시에 받는다.

하타는 베들리 런에 어울리는 서니를 만들기 위해 그녀에게 독서나 피아노 등의 학습을 시키고, 서니는 그것들을 하도록 강요받는다. 하타가 서니에게 원하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피아노를 연습하고,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디면서 책을 많이 읽는 것”(27)이다. 하타는 서니가 피아노에 큰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그녀에게 계속해서 피아노 연습을 할 것을 강요하며 서니는 이를 수긍하고 피아노를 계속 연주한다. 또한, 새 가정을 꾸려 그녀에게 어머니를 만들어주겠다는 하타의 생각에 서니는 격렬하게 반대하며 울고불고 했지만(5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타는 메리 번스와 결혼할 생각마저 하며 그녀와 친해지도록 서니에게 메리 번스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 서니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녀에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것이다.

또한, 하타가 서니에게 지나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끝애를 저버린 것에 대한 미안함을 서니에게 보상하려는 심리에서 나온 행동일 수도 있다. 끝애는 서적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것을 좋아했으나 당시 유교 사회 풍토와 가정환경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포기했어야 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하타가 서니에게 끝애를 투영하여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니는 순종적이며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며 하타에게 복종하는 행동을 보인다. 그녀는 하타의 바람대로 메리 번스와 잘 어울리며 ‘착한’ 딸이 되고자 노력한다. 가령, 하타는 서니와 메리 번스가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던 때”(53)를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 그러나 막상 현관으로 두 사람을 맞으러 나가면 서니는 얼른 위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재미있었냐고 물으면, “네, 아빠, 재미있었어요.”라는 대답만 던지고는 계속 계단을 올라갔다. 그러면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라고 잔소리를 했다. 물론 그 애는 차에서 내릴 때, 문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메리 번스에게 인사를 했다. 그래도 그 애는 내 말에 따라 계단 꼭대기에서 고개를 잠깐 숙여 절까지 하고 나서 내쳐 복도를 지나 자기 방으로 사라져 버렸다.

[...] but when I'd meet them in the foyer Sunny would be quickly ascending the stairs. I'd ask her if she had had fun, and she would answer, "Yes, Poppa, I did," and then continue on her way up. I'd remind her to say thank you, but of course she had already, without fail, having made offerings to Mary Burns in the car and at the door, and she'd even curtly bow at the top of the stairs before disappearing down the hall to her room. (53)

메리 번스와 시간을 함께 보낸 뒤 바로 방으로 올라가 버리는 서니의 모습에서 하타가 원하는 딸이 되기 위해 마지못해 메리 번스와 외출했음을 알 수 있다. 메리 번스에게 지나칠 정도로 예의 바르게 대하는 서니의 모습은 그녀에 대한 감사함에 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하기 싫은 일을 하타 때문에 억지로 하는 듯한 모습에서 그녀의 수동성이 두드러진다. 이는 서니가 하타의 가부장적 면모에 복종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하타의 가부장제 아래 서니의 여성성이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서니도 하타의 가부장적 체제에 순응하며 하타와 서니의 관계는 지배-피지배의 양상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일견 강압적인 가부장과 순종적인 딸의 관계처럼 보이는 하타와 서니의 관계의 이면에는 하타가 내면화한 인종차별주의와 이에 대한 서니의 저항이 자리하고 있다. 하타의 가부장적 면모는 스스로를 서니의 지배자로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것으로, 서니에 대해 인종적 우월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타의 인종적 우월감은 서니의 출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인과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춘 그는 한국출신의 흑인 혼혈인 그녀를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종적 우월감이 하타의 남성 우월주의와 결합하여 억압적인 가부장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하타는 베들리 런이라는 미국 중산층에 어울리는 딸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서니에게 피아노로 표상되는 미국 중산층의 교육을 강요한다. 하지만 서니는 피아노 치는 것을 거부하고 피아노를 치우는 일로 하타와 실랑이를 벌인다. 피아노 치는 것을 거부하는 그녀의 모습은 하타의 가부장제에 대한 거부 뿐 아니라 인종차별에 대한 반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그녀가 지미 기스(Jimmy Gizzi)와 어울리는 모습에서 부각된다. 하타와의 대립 후 서니는 가출하여 지미 기스와 어울리며 많은 주말 밤을 터너 스트리트(Turner Street)에 위치한 그의 집에서 보낸다.

지미 기지가 거주하는 터너 스트리트는 포장도 안 된 막다른 도로에, 싸구려 아파트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있을 만큼 베들리 런과는 상반되는 동네다(98). 베들리 런에서는 유색 인종을 만나기 힘들었던 것과는 달리 그곳에서는 다수의 흑인과 푸에르토리코인을 볼 수 있다. 베들리 런에서 유색인종은 하타 하나였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로 베들리 런이 서양 중심사회라면 터너 스트리트는 유색 인종 중심 사회인 것이다. 그렇기에 서니가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유색인종들과 어울리는 것은 백인 우월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종차별에 대한 반항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으며 그녀가 자신과 같은 유색인종을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니의 인종차별에 대한 반항은 그녀가 아들인 토마스(Thomas)를 낳았던 이유에서도 언급된다. 그녀는 하타에게 토마스를 “그릇된 이유(the wrong reasons)”(283)에서 낳았다고 고백한다.

단지 아버지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오랜 세월 뒤의 일이지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토머스도 아버지에게 대한 내 원한의 결과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아요.

I wanted that baby more just to be against you. And I'm not happy that in some way, maybe, even though it was years later, that Thomas came from my spitting you. (283)

토마스 또한 서니와 같은 흑인 혼혈이다. 서니의 고백에서도 드러나듯 흑인 남편 사이에서 흑인 혼혈인 토마스를 출산한 이유는 하타의 가부장제에 대한 거부감도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거부감의 내면에는 혼혈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하타의 인종차별과 백인우월주의에 대한 반항도 포함되었음이 부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릇된 이유”라는 그녀의 표현은 인종차별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혼혈에 대한 하타의 거부감은 서니의 낙태를 강요했던 모습에서 극대화된다. 서니의 아이가 그녀의 흑인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하타는 산달이 가까워진 그녀에게 단순한 검사를 한다며 친한 의사인 아나스타샤(Anastasia)에게로 데려간다. 서니의 상태를 보고 수술을 거부하는 그에게 하

타는 그녀의 낙태를 간청한다. 아나스타샤가 옆에서 도와줄 간호사가 없다고 하자 본인이 간호사를 자처하기까지 한다. 하타는 그에게 낙태를 부탁하며 수술의 목적이 “내 딸을 위해서”(343), “저 아이를 이 곤경해서 구해 내기 위해”(343)서라고 말하며, 서니의 낙태가 마치 서니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가 수술을 강요한 것은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서니가 아이를 출산한다면 그 아이는 흑인 혼혈로, 인종차별과 백인 우월사상을 지닌 하타에게 서니의 흑인 혼혈 아이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결국, 하타는 그녀의 동의 없이 수술을 강행한다. 이로써 서니는 그의 가부장제가 단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가부장적 모습뿐 아니라 서구 중심의 인종차별도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타가 서니에게 낙태를 강요한 것은 서니를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그가 서니에게 낙태를 강요한 이유에는 베들리 런에 어울리는 딸의 모습을 만들고자 했던 그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분노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서니를 입양하고 양육한 것이 인도주의적 측면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위한 이유도 있었음을 입증하는 셈이기도 하다. 정혜옥은 서니라는 이름은 하타에게 있어 “자신의 생을 성공적으로 빛나게 해줄 존재여야 한다는 욕망을 담고 있다”(140)고 언급한다. 다시 말해서, 서니를 완벽하고 안정적인 베들리 런으로의 정착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베들리 런에서 하타는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거두었고 훌륭한 인품으로 인해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지만 동양 남성이기 때문에 완벽히 그곳에 속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인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국 사회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그는 서니의 입양을 택한다. 이는 그의 또 다른 언급에서도 나타난다. 하타는 “적어도 좋은 평판을 얻고 누구나 기분 좋게 받아들일 가족”(204)을 원했으며, 그 가족이 “베들리런의 하타 가족이 되기를 바랐다”(204)고 고백한다. 그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 하타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아닌 베들리 런에서 자신의 위치를 더욱 빛나게 해줄 수단으로 서니를 택했음이 나타난다. 이는 하타가 서니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준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서니를 여긴 것을 의미한다. 서니의 도구화는 하타의 의식에 존재하는 남성 중심주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의 남성 중심주의는 서니의 성을 통제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타는 가출한 서니를 찾기 위해 지미 기지의 집을 찾아가고 서니가 지미와 흑인 남성인 링크

에번스(Lincoln Evans)에게 둘러싸여 성 접촉을 하는 것을 목격한다. 그런 그녀를 목격한 하타는 서니가 “그저 여느 여자이기를 바랐으며 더 이상 내 친족이나 딸, 심지어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랐다”(116)고 고백한다. 서니의 성이 박탈되었다고 느끼자 그녀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런 그의 모습은 과거 끝애와의 관계에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오노 대위에게 끝애가 임신했다는 것을 듣고 마음속으로 그녀가 죽길 바랐으며, 결국은 끝애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 채 그녀를 저버렸다. 지금의 하타 또한 서니의 성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자 아무 말 없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지미의 집에서 나오며 그녀를 저버린다. 하타는 여성의 순결과 처녀성에 대해 집착하는 남성 중심주의를 내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서니의 몸에 대한 그의 언급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서니의 몸을 보며 “자부심과 경이감, 그리고 가장 순수한(불가능하다 해도) 수준의 갈망을 느끼며, 영원히 더럽혀지지 않고 원시의 상태 그대로를 유지해 주었으면 하는 아린 희망”(114)을 품었다. 여기서 원시란 처녀성을 가진 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의 남성 중심주의가 가부장제로 포장되어 서니의 성을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타는 결국 서니를 저버리며 둘은 오랜 시간 왕래와 연락도 없이 지낸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에게 익명으로 배달된 카드를 본다. 직감적으로 그 편지가 서니에게서 온 편지임을 확신한 하타는 에빙턴(Ebbington)에 위치한 쇼핑몰로 서니를 찾아간다. 그곳에서 목격한 서니의 모습은 과거 서니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몇 년 만에 만난 서니는 에빙턴에 위치한 쇼핑몰에서도 그 쇼핑몰을 대표하는 상점의 지배인이 되어 있었다. 하타는 “멋진 가게에서 그렇게 세심한 직원들을 거느린 지배인이 된”(213) 서니를 만나게 될 줄 몰랐다고 고백하며 과거와는 달리 서니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타는 베들리 런에 어울리는 서니를 만들기 위해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반성한다.

[...] 나는 그때 이 애를 설득하기 위해 철저하게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나는 완벽해질 때까지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이 애가 그렇게 하도록 강제했다. 만일 이 애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다. 어떤 면에서 내가 한 행동은 일종의 무시였다. 나는 이 애를 서니로서, 까다롭고 성급하고, 화, 잘 내는 서니로서 마주하지 않았다.

[...] I was so thoroughly organized in my convincing her, that I couldn't stop until it was complete. I forced her to do it. Had she decided not to, I don't know what I would have done. In a way, iw was a kind of ignoring that I did, an avoidance of her as Sunny-difficult, rash, angry Sunny. (283-284)

그의 반성은 자신의 가부장제가 서니에게 폭력적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가부장적 모습에 대한 인정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포장되었던 인종차별에 대한 반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하타가 흑인 혼혈인 토마스를 손자로서 인정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하타는 사람들에게 토마스를 손자라 소개하고 그에게 진정한 의미의 가족애를 느끼며 손자로 인정한다. 이처럼 흑인 혼혈인 서니와 토마스의 존재를 인정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흑인 혼혈에 대한 그의 시각이 바뀌었음을 나타내며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서양 우월주의의 환상에 대해 인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꼭 그렇다고 볼 순 없지만, 서양 우월주의 환상의 파괴는 하타를 베들리런에서 떠나기로 결심하도록 만든다.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베들리런에서 떠나는 하타의 모습은 그의 수동적인 면모를 부각한다. 그의 수동적인 모습은 인종차별에 저항하고 미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서니와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그들의 대비되는 모습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젠더 이미지를 파괴한다. 하타는 베들리런 정착 후 미국 사회, 즉 서양이 동양인에게 부여하는 이미지에 맞게 수동적이며 순종적으로 살아왔다. 이와는 반대로 서니는 그러한 이미지를 거부하고 이에 저항하며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았다. 이와 같이 하타와 서니는 남성-능동적, 여성-수동적이라는 남성과 여성에 관한 전형적인 젠더 전형성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면, 이런 양상은 백인 중심주의에서 비롯된 하타의 제스처 라이프를 비난하는 서니의 모습에서 더욱 부각된다.

“아무것도요. 저는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아빠의 관심도 원하지 않아요. 어차피 가짜라고 생각해요. 혹시 모르실지 모르지만, 아빠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타운에서 아빠가 어떤 평판을 얻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거기에 상처를 내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말도 안 돼. 너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보아 온 것은 아빠가 모든 일에 매우 주도면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쁘고 큰 집에서도, 이 가게에서도, 모든 손님들에게도. 보도를 쓸고 다른 가게 주인들하고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자신을 한번 보세요. 아빠는 마음에도 없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척과 예의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빠는 늘 다른 사람한테 이상적인 파트너이자 동료가 되려고 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니? 나는 애초에 일본인이다! 유순해서 남들의 사랑을 받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거냐?”

“베들리런에서는 그런다고 해서 누구 하나 콧방귀도 끼지 않아요. 카드 가게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세요? 쓰레기와 보도 청소 일정을 잘 짜는 ‘착한 찰리’를 두었으니 얼마나 좋으냐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아빠에 대해 진짜로 생각하는 건 그거라고요. 일등 시민이 되는 게 아빠의 직업이 되어 버렸어요.”

"I don't want anything," she said, as though saying the words harshly enough would make it so. "Nothing, I don't want love and I don't want your concern. I think it's fake anyway. maybe you don't know it, but all you care about is your reputation in this snotty, shitty town, and how I might hurt it."

"This is nonsense. You're speaking nonsense."

"I guess I am," she said. "But all I've ever seen is how careful you are with everything. with our fancy big house and this store and all the customers. How you sweep the sidewalk and nice-talk to the other shopkeepers. You make d whole life out of gestures and politeness. You're always having to be the ideal partner and colleague."

"And why not? Firstly, I am a Japanese! And then what is so awful about being amenable and liked?"

"Well, on one in Bedley Run really gives a damn. You know what I overheard down at the card shop? How nice it is to have such a 'good Charlie' to organize the garbage and sidewalk-cleaning

schedule. That's what they really think of you. It's become your job to be the number-one citizen." (94-95)

서니는 하타의 제스처 라이프를 직접적으로 비난한다. 그녀에게 그의 제스처 라이프는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그들의 삶을 모방하는 것이며 백인이 만든 스테레오 타입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노력이다. 따라서, 서니는 그의 제스처 라이프의 바탕이 백인 우월사상과 서양 중심의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비판한다. 서니의 비난에 하타는 자신이 사랑받는 이유를 자신이 일본인이며, '유순'하기 때문이라 한다. 즉, 하타는 일본인, 나아가 동양인은 순종적인 이미지를 지녔다는 서구 중심의 오리엔탈리즘의 차별적 시선을 내재했음을 보여준다. 결국은 하타도 서양 오리엔탈리즘의 피해자인 셈이다.

하지만 하타는 서니와 달리 서양인들의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시각을 비판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출신을 핑계로 그것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서니는 하타처럼 침묵하려 하지 않으며 서양 우월사상에 빠져있는 하타를 비판하는 능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런 그녀의 모습은 수동적이며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하타와 대비되며 전통적인 젠더 스테레오 타입을 전복시킨다. 다시 말해, 하타의 수동성과 순종적인 면모는 서니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모습과 대비되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젠더를 전복하는 것이다. 이는 끝애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나타났으며, 하타와 두 여성 인물과의 관계를 통해 전복된 젠더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타는 서니로 인해 자신의 제스처 라이프를 돌아보며 수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면, 물에 빠진 토마스와 레니를 구하며 자신의 인생에서 “또 한 번의 방치는 견딜 수 없”(323)다고 언급하며 그들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베들리 런에서의 자신의 성공을 증명했던 집을 팔기로 결심하고 베들리 런을 떠나기로 한다. 이런 그의 모습은 그가 허울뿐이었던 제스처 라이프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것이라는 결심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곳에 이를 것”(356)이라 고백한다. 이는 결국은 그가 다시 제스처 라이프를 살 것이라는 암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그의 암시는 “귀향”(356)이라는 단어에서 더욱 부각된다. 즉, 이는 변화를 거부하는 그의 수동적인 모습이 은연중에 들어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제스처 라이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타의 한계를 드

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V. 오리엔탈리즘과 남성성: 아시아계 미국 남성과 백인 여성

앞서 언급했듯이, 하타는 미국 베들리 런에 정착하여 동네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미국인이 된다. 그러나 베들리 런에서 안정된 지위를 누리고 있는 현재와는 달리, 처음 그가 베들리 런에 정착할 당시 그는 이방인으로서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주의를 경험하게 된다. 가령, 그는 자신이 길을 묻거나 상점에 들어설 때 “갑자기 어색하게 조용해지곤”(3) 하는 사람들에게서 “말을 아끼는 듯한 그 쌀쌀함”(3)을 느끼면서 “오래 몽그적거릴 만큼 환영받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3)고 고백한다. 즉, 한국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성장한 하타는 정착 초기에 베들리 런 사람들로 부터 배척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실제로 “흑인이나 중국인 같은 대우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으며 실제로 그런 일에 대비하여 단단히 각오를 했었다”(3)고 까지 말한다. 하지만 백인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하타는 이제 “신분에 대한 문제는 희미해졌고, 지금은 거의 문제가 없는 셈”(4)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주의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자신이 차별적인 사회에 적응함으로써 배척당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환영받는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해 왔다.

우선, 하타는 베들리 런 주민들 사이의 관계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에게 인정받고자 했다. 아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하타는 이 “관계의 본질”(44)이 미국 중산층 사회의 개인주의임을 알아차리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

베들리런과 같은 타운에서는 대부분 그렇듯이,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거리 같은 곳에서는 특히 그렇듯이 이웃이라는 것을 가장 제한된 의미의 친밀함을 나눈다는 뜻일 뿐이다. 예를 들어 하수관이라든가 소유지 경계라든가 연예 재산세 평가라든가 하는 것들이 연결고리가 된다. 좀 더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은 잠깐 동안만 환영받을 뿐이다. 나도 어떤 가족들의 경우에는 자식들을 통해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카풀을 한다든가, 휴일에 바비큐 파티를 한다든가, 북부의 별장이나 롱아일랜드의 해변에서 주말을 함께 보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암묵적인 행동 계약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계약서에 정의와 예의라는 도장을 찍은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윤리(이런 것을 윤리라고 부를 수 있다면)에서 가장 나쁜 것을 이 옷을 끌어내 폐를 끼치는 것이다.

I had lived there a number of years, but as it mostly is in towns like Bedley Run, and particularly on streets like ours, being neighbors means sharing the most limited kinds of intimacies, such as sewer lines and property boundaries and annual property tax valuations. Anything that falls into a more personal realm is only tentatively welcomed. I know certain families have enjoyed relationships because of their children, had carpools and holiday barbecues, and perhaps a shared weekend at a country house upstate or on the Long Island shore, but on the whole an unwritten covenant of conduct governs us, a signet of cordiality and decorum, in whose ethic, if it can be called such a thing, the worst wrong is to be drawn forth and disturbed. (43-44)

하타는 이웃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그들에게 적당한 관심을 표현하는 베들리 런의 “암묵적 행동 계약”(44)을 철저히 따랐다. 여기서 “암묵적 행동 계약”이란 미국의 개인주의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또한, 베들리 런 주민이 그들의 친목을 유지하기 위한 암묵적인 룰이다. 동양인인 하타가 서양인들의 암묵적 룰을 수용하려는 것은 미국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그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하타는 미국의 행동 양식을 모방하고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미국 사회에 동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타의 생각처럼 하타의 그러한 노력은 베들리 런 주민들이 하타를 이웃 구성원으로 보다 빨리 인정하도록 만든다.

베들리 런 주민들은 표면적으로는 하타를 베들리 런 주민으로서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들이 하타를 완전히 자신들과 같은 주민으로 인정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예를 들면, 베들리 런 주민들이 하타를 부르는 명칭이 이를 증명한다. 하타는 베들리 런에 정착하며 자신의 일본식 이름이었던 ‘지로 구로하타(Jiro Kuro Hata)’를 ‘프랭클린 하타’라고 바꾼다. 이관수에 따르면, 그의 미국 이름인 프랭클린 하타는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를 떠올리게 하며, 이는 “가장 미국적인 이름을 선택”하여 “미국인이 되고자 하는 동화와 열망”을 나타낸다(73).

즉, 미국 주류사회에 속하고 싶은 그의 갈망이 이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베들리 런 주민 중 누구도 그를 프랭클린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다만 의사를 칭하는 ‘닥’(Doc)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닥 하타’라고 부를 뿐이다. 메리 번스 또한 하타와 처음 만난 날 그에게 “그 의사 선생님”(45)인지 묻는다. 나영균은 “사람들이 그를 하나의 인간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역할자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하는”(109) 것이라 언급한다. 또한, 이선주도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 하타가 의사가 아님에도 그를 ‘닥 하타’라고 부르는 것에서 “그를 자신들과 동등한 미국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드러난다”(252)고 논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베들리 런 주민들은 표면적으로는 하타를 자신들의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를 구성원으로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음이 그의 호칭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하타는 의사가 아니라 의료기구상점을 운영하지만 그에게 ‘닥’이라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그가 의사처럼 품위 있고 교양 있게 행동하여 베들리 런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베들리 런 주민들의 욕망이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베들리 런 주민들의 욕망을 알아챈 하타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의 이러한 모습에 주민들은 그를 베들리 런 주민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타는 베들리 런 정착초기에는 인종차별을 경험했다. 예를 들면, 그는 사내아이가 진열장에서 하타를 보며 얼굴을 찌푸리거나, 문 밖 보도에 윤활유를 잔뜩 발라 놓기도 했다고 회상한다(4). 하타는 이러한 인종차별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신고하지도 않았으며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혼낸 적도 없었다(4). 그는 서양의 인종차별을 받아들이고 이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인종차별을 하는 베들리 런 주민들과 그것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하타의 모습에서 그들 모두 서양의 우월성과 동양의 열등함을 주장하는 오리엔탈리즘적 사고를 내면화했음을 알 수 있다. 하타는 백인 중심사회에서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순응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는 그의 지인이자 인도계 미국인인 레니 바네르지(Renny Banerjee)가 베들리 런에서 겪었던 불쾌한 인종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하타가 한 대답에서도 드러난다.

가끔 어떤 상황에서는 나도 약간 불편을 느꼈던 게 사실이요. 뭐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었겠지만. 레니는 내 말에 동의 안할지 모르지만,

나는 어떤 곳에서 편안함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많은 부분은 내 책임이라고 믿었고. 왜 그게 다른 사람 책임이어야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소? 그래서 나는 시민으로서, 동료로서, 파트너로서 다른 사람들을 좋게 대하려고 해요. 이런 일은 절대 귀찮아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나는 듣지 않으려고 해요. 결국 나 자신의 평화와 위안은 나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걸 배웠소.

It's true that at times I have felt somewhat uneasy in certain situations, though probably it was not anyone's fault but my own. You may not agree with this, Renny, but I've always believed that the predominant burden is mine, if it is a question of feeling at home in a place. Why should it be another's? How can it? So I do what is necessary in being complimentary, as a citizen and colleague and partner. This is almost never too onerous. If people say things, I try not to listen. In the end, I have learned I must make whatever peace and solace of my own. (135)

베들리 런에는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에 존재한다. 레니는 이러한 인종차별을 “추한 구름”(135)이라고 표현하며 불쾌감을 나타낸다. 하지만, 레니에게 충고하는 하타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인종차별이 그것을 행하는 가해자인 서양의 책임이기보다는 많은 부분은 동양인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는 오리엔탈리즘을 내재화한 동, 서양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하타는 서양 중심의 오리엔탈리즘과 백인 우월사상을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피지배자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인종차별의 문제에서도 동양인인 자신이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타의 백인 중심주의 사상과 오리엔탈리즘은 그가 베들리 런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메리 번즈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메리 번즈는 마운트 홀리요크(Mount Holyoke) 칼리지의 최우등 졸업생으로, 세계 2차 대전 중에는 해군의 여군 예비 부대원으로 복무경험이 있으며(43), 실력 상당한 심장 전문의였던 남편과 사별한 후 자식들과 떨어져 홀로 베들리 런에 거주하는 전형적인 백인 여성이다. 그녀는 개인주의를 철저히 따라 이웃 간 적절한 거리를 침범하지 않는 베들리 런의 다른 주민과는 달리 하타에게 먼저 다가가 말

을 걸 정도로 당찬 여성이다. 또한, 서니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녀에게 온 열정을 쏟는 모성에 넘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타는 서니와 끝애를 대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으로 메리 번스를 대한다. 그들은 하타의 집 마당에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아뇨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나는 의사가 아닙니다. 나는 빌리지에 의료 기기 가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손님하고 다른 가게 주인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게 되었고 그것이 그대로 굳어 버리게 되었지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이제는 아무도 나를 프랭클린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네요. 상관은 없습니다만 남들이 오해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People called me Doc, but I'm not a physician. I own the medical supply store in the village. Many years ago some customers and other merchant got to calling me that, and somehow it stuck. I wish sometimes it wasn't so, but nobody seems to want to call me Franklin. I don't mind, but I would never wish to mislead anyone.
(45)

하타는 ‘닥’이라는 호칭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말한다. 그는 백인들이 부여한 역할로 살고 있으며 본인 또한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기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하타의 순종성이 드러난다. 그리고 하타는 자신의 집 마당이지만 그곳에서 메리 번스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부담감을 느낀다. 이러한 부담감은 메리 번스와 하타의 인종적 차이에서 기인한다.

메리 번스는 남의 눈에 띄는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손가락질로 도로 아래쪽 자기 집을 가리키기도 했고, 나에게 정원을 구경시켜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자신을 위장하거나 다른 식으로 숨으려는 짓은 하지 않았다. 하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었겠는가? 그녀는 과부였다. 나는 독신남이었다(아버지이기도 했지만). 우리 둘 다 중년 끝물이었다. 고

개를 떨군 작약 사이를 함께 걷는 것은 일요일에 식물원으로 소풍을 나간 것처럼 무구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새로 발견한 벗과의 동행을 단순히 즐기기만 하지 못하고, 합리화의 부담, 그녀와 함께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야 하는 부담을 느꼈다.

[...] it didn't seem that Mary Burns held any cares of being sighted, pointing down the street to her house and asking me for a tour of my front garden, doing nothing to camouflage herself or otherwise hide. Of course, why should she have? She was a widow, I a bachelor (if a father), both of us well into our middle years and to step together among the drooping peonies was as innocent as any Sunday excursion in a botanical park. And yet I felt the burden of justification, of having a necessary reason for being with her, besides simply enjoying the newfound company. (47-48)

나영균에 따르면, “하타가 느끼는 부담은 백인 사회가 무언 중에 소수민족에게 가하는 압력에서 오는 것이다”(110). 즉, 동양 남성인 자신이 백인 여성인 메리 번스를 만나는 데서 오는 부담감으로 하타는 “용납되지 않는 사회적 관습”(나영균 110)을 어긴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러한 부담감은 그가 미국 사회가 만든 사회적 관습을 어기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동양인은 순종적이라는 이미지에 갇혀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는 하타가 자신에게 가해진 인종차별적 시선과 백인 우월주의를 극복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불안해하며 부담감을 느끼는 하타와는 달리 메리 번스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며 그와의 대화에서도 그녀가 하타를 이끄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하타가 끝애와 서니와의 관계에서 주로 지배자적 위치로 그녀들을 억압하려고 했던 모습과 달리 메리 번스에게는 남성성이 약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며, 이를 통한 상반된 젠더 이미지가 나타날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하타가 메리 번스에게 끌렸던 이유 중 하나는 그녀가 베들리 런에 어울리는 백인 여성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앞서 살펴봤듯, 하타는 베들리 런이라는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구성원이 되고 싶어 서니를 입양했다. 하지만 “베들리 런의 하타 가족”(204)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인이자 서니의 어머니가 필요하다.

하타는 그의 아내로 “배경 좋고 재산이 있는 일본인”(51)을 찾고 있었지만, 마땅한 여성이 없었기에 결혼을 하지 못했다. 메리 번스는 그가 찾고 있던 배경 좋고 재산이 있는 평판 좋은 부인상에 부합한다. 또한, 그녀의 인종은 그녀와 가족을 이룬다면 하타가 미국 사회에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 실제로, 하타는 그녀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생각도 한다. 하타가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평생 노력했음에도 완전히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존재를 메리 번스와 가정을 꾸린다면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즉, 메리 번스와 관계를 통해 하타는 베들리 런으로의 적응을 완성하고자 한다.

메리 번스는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처음에는 그가 동양인 남성에게 끌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다. 이는 그녀의 언급에서 드러난다.

그녀가 나를 훨씬 더 편안하게 느끼게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동양인 남자에게 깊은 매력을 느낀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적어도 처음에는 얼마나 이상했는지 모른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동양인 남자를 좋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전혀 없다, 그러나 그런 느낌 자체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해야 한다, 그리고 어쨌면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이 창피한 일이나 아니냐는 결국에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고.

And when she was even more comfortable with me, she confided how odd a recognition it was for her, at least at first, to find herself deeply attracted to an Oriental man. She laughed at herself and said there was no reason she shouldn't have been, that there was no good reason at all, but the feeling was there and she ought to be truthful, and whether it was shameful or not probably didn't matter in the end. (52)

동양 남성에게 끌렸던 자신을 인정하기 쉽지 않았다는 사실은 메리 번스 또한 백인으로서 인종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녀 또한 베들리 런 주민들처럼 아시아 인종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녀의 내면에 존재하는 동양인에 대한 은근한 인종차별을 드러냈음에도 하타는 그런 메리 번스

의 생각에 동의하고 그녀를 이해한다. 이는 백인 우월사상이 깊게 주입된 그의 모습을 드러낸다. 또한, 동양인들에 대한 서양인들의 차별적인 시선을 거부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태생적 한계를 수용하고 침묵하려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메리 번스가 하타의 얼굴을 묘사하는 것에서도 메리 번스의 하타, 더 나아가 동양인에 대한 생각이 나타난다.

그게 아니에요. 당신 얼굴이 죽은 남편 얼굴과 너무 달라서 그런 것뿐이에요.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요. 브래들리는 이목구비가 매정해 보였어요. 길고 좁은 코, 움푹 들어간 눈, 푹 튀어나온 턱. 생김새가 호전적이었죠. 하지만 당신 얼굴의 부드러움은 놀라워요. 모든 선이 훨씬 더 부드러워요.

I'm not. It's just that your face is so unlike my late husband's, I can't tell you. Bradley had such severe features, a long, narrow nose and deep-set eyes and a jutting chin. He was aggressive, in appearance. You have a wonderful gentleness to your face. A softer line to everything. (70)

메리 번스는 동양인인 하타를 백인인 자신의 죽은 남편과 상반되는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것은 동양인은 여성적인 이미지를 지녔다는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이 반영되어있음을 나타낸다. 즉, 메리 번스 또한 서양 중심의 오리엔탈리즘을 내재화한 것이다. 메리 번스의 언급에서처럼 백인들이 생각하는 백인 남성의 이미지는 매정함이나 호전적인 것처럼 더욱 남자다운 이미지로 나타난다. 이와는 반대로 부드러움으로 나타나고 있는 동양 남성의 이미지는 백인 남성에게 비해 여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사이드의 설명처럼, 서양-남성적, 동양-여성적인 서양과 동양의 이분법적 젠더 이데올로기가 메리 번스의 언급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메리 번스가 하타를 다소 여성적인 이미지로 묘사했던 것과는 달리, 하타는 그녀의 생김새를 남성적인 모습으로 표현한다. 예컨대, 그녀의 몸을 보고 “등은 여전히 유연하였으며, 운동으로 다져져 아주 강건해 보였고”(70), “탄탄하고 탄력이 있”(349)으며 “마치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여자, 아직 한창때에 이르지 않은 여자처럼 보였다”고 말하며 “그 모습에 몹시 놀라면서 겸허해졌다”(349)고

언급한다. 이는 그가 서니의 생김새를 “여위고 관절이 불거진 어린아이”(20T 4)라고 묘사하고, 끝애의 외형을 “종아리와 발목은 가늘”(294)고 “발등은 깜짝 놀랄 정도로 앙상”(294)했으며 “몸통도 다른 데보다 더 풍만하지 않았다”(294)고 묘사한 것과는 상반되는 이미지다. 이처럼 그는 동양 여성은 연약하고 가냘픈 여성의 이미지로 묘사했다면, 백인 여성에 강인한 역센 남성의 이미지를 부여했다. 이것은 백인에 대한 환상이나 우월감을 메리 번스의 외형 묘사를 통해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서양을 남성적이고 우월한 이미지로 생각하는 하타의 은연중의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이 드러나는 것이다. 메리 번스에게 느끼는 서양인에 대한 우월감은 하타로 하여금 남성성 변화를 갖게 한다. 끝애와 서니로 표상되는 동양계 여성을 대할 때는 본인이 지배자의 위치로 그녀들을 억압하려 하고 남성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서양 여성인 메리 번스를 대할 때는 남성성이 약화되고 여성성이 강화된 모습을 보인다.

남성성이 약화된 하타는 메리 번스 앞에서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면, 그는 자신의 뚜렷한 주관 없이 그녀의 말에 항상 동조하는 태도를 보인다. 하타는 서니 문제에 대해서 메리 번스와 상의할 때, “메리 번스가 요구하는 대로 해 왔다”(58)고 말하며 늘 메리 번스의 “판단을 믿어왔”(61)다고 언급한다. 또한, 그녀는 하타에게 “상대한테 늘 동의해 줄 필요는 없다”(60)고 말한다. 이는 하타가 서니와 끝애에게 가부장적이며 지배자적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메리 번스를 대할 때는 그의 남성 중심주의와 가부장적 모습이 무너지며 순종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부각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의 남성성이 무너지고 여성성이 강화되는 것은 메리 번스가 그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했을 때 더욱 극대화된다. 어느 봄날 그와 메리 번스는 그녀의 죽은 남편의 무덤을 다듬으러 묘 근처에 간다. 묘지에 이르러 메리 번스는 하타의 손을 잡아끌며 유혹하고 뺨에 입을 맞추기까지 하는 등 과감하며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행동을 한다. 이런 메리 번스의 행동에 대해 하타는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으며 그저 수동적인 모습만 보인다. 그들은 더욱 으스스한 곳으로 가고, 그곳으로 향할수록 하타는 걱정을 하지만 메리 번스는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듯 메리 번스는 과감하며 남성적인 이미지로 겁 없고 모험을 좋아하는 진취적인 이미지로 나타나지만, 하타는 소심하며 겁이 많고 유약한 여성적인 이미지로 비친다. 그녀와 하타는 입을 맞추고 성관계를 맺으려 하지만 그는 갑자기 모든 것을 중단한다. 이는 과거 끝애와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을 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로 백인 여성

과의 관계에서 그의 남성적인 면모가 희미해지는 모습을 나타낸다. 오히려 메리 번스가 남성적이고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적극적인 그녀의 모습과는 반대로 수동적인 하타의 모습에서 여성성이 강화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모습은 메리 번스로 나타나는 서양의 남성성과 하타로 나타나는 동양 여성성의 대비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렇듯 하타는 백인여성 앞에서는 동양 여성을 대할 때와는 달리 남성성이 결여된 모습을 드러낸다.

하타가 줄곧 주변의 눈치를 보며 결국은 메리 번스와의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백인 중심주의 시각에서 벗어날 수 없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사랑과 성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백인 중심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동양인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베들리 런에서 눈에 띄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곳에서 배척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메리 번스와의 관계를 생각하기에 앞서 자신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메리 번스는 적극적으로 하타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그에게 깊은 애정이 있었으며 그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녀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베들리 런에서 그에게 먼저 다가갔으며, 그의 딸인 서니에게도 마치 어머니처럼 그녀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또한, 베들리 런 주민들이 그를 ‘닥 하타’라 불렀던 것과는 달리, 오직 그녀만이 하타의 미국식 이름인 ‘프랭클린’이라 불리주며 다른 백인들과는 달리 하타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타의 가게가 어려워지자 번스는 금전적으로 그를 도와주기까지 했다(213). 이런 메리 번스의 애정과는 달리 하타는 그녀에게 이기적이며 때로는 냉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예컨대 테니스 클럽에서 열리는 댄스파티에 초대되어 메리는 드레스와 그에 어울리는 구두도 신으며 준비하며(56) 하타와 함께 보낼 시간을 준비했지만, 하타는 메리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곳에 가지 않았다(59). 또한, 그녀의 죽음을 신문 부고란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그녀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메리가 서니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과는 달리, 하타는 그녀의 자식이나 손주 중 누구도 만난 적이 없었으며, 그녀에 관한 사소한 사실들도 부고란을 통해 알았다(43). 이처럼 하타는 메리 번스를 연인으로서 사랑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들이 있었으며, 이는 그가 사랑한 것이 메리 번스 자체라기보다는 그녀의 백인성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메리 번스와 하타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자면, 메리 번스는 은연중에 백인 중심주

의를 내재한 여성으로 하타는 그녀와의 관계를 통해 백인들이 만든 동양 남성의 이미지를 철저히 따르는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끝애와 서니를 지배자의 위치에서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사상을 바탕으로 그녀들을 대했던 반면, 메리 번스와 관계에서는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을 한다. 메리 번스와 하타의 관계는 서양을 남성적인 공간으로 상상한 반면 동양을 여성적인 곳으로 규정한 오리엔탈리즘적 사고와 궤를 같이 한다.

결국, 하타는 ‘여성적인 동양’이라는 오리엔탈리즘의 신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힌 인물이라 할 수 있다.

V. 결론

이창래의 『제스처 라이프』는 주인공인 하타의 과거와 현재, 그 시간 속에서 그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세 명의 여성 인물들을 통해 그의 제국주의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 있다. 하타는 세 명의 여성 인물에게 인종적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수직적인 젠더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한층 복잡한 양상으로 표출된다. 본론에서 살펴 본 것처럼, 종군위안부인 끝애와의 관계에서는 일본 제국주의를 바탕으로 한 하타의 지배자의 모습이 부각되며 제국주의에 힘입은 남성성의 강화가 나타난다. 한국계 흑인 혼혈인 서니와의 관계에서 하타는 흑인 혼혈에 대한 인종차별을 드러내며, 이러한 인종차별은 남성중심주의와 결합하여 가부장의 이름으로 서니를 억압하는 가부장 주의로 표현된다. 미국 백인 여성인 메리 번스와의 관계는 끝애나 서니와의 관계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메리 번스와의 관계는 백인 우월주의와 오리엔탈리즘을 내면화한 동양 남성 하타의 모습, 즉 남성성이 약화된 동양 남성 하타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창래는 『제스처 라이프』를 통해 오리엔탈리즘에 기초한 동양=여성적 피지배자, 서양=남성적 지배자라는 이분법적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보여준다. 하타와 끝애의 관계는 일제강점기의 일본과 한국의 지배-피지배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들의 관계는 지배-피지배의 관계를 역전시키지는 않지만, 능동적이며 우월한 끝애와 수동적이고 우유부단한 하타의 모습을 통해 지배와 피지배에 기초한 수직적 우월관계를 해체한다. 백인 우월주의를 내면화한 하타는 가부장으로서 흑인 혼혈 여성인 서니를 억압하지만, 『제스처 라이프』는 하타의 백인 우월주의와 가부장의 권위를 부정하고 무력화하는 서니를 보여줌으로써 하타의 백인 중심주의와 가부장적 사고가 얼마나 근거 없고 무기력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처럼 끝애와 서니는 민족과 젠더에 대한 문화적 생각을 지배하는 이분법을 허구적인 것으로 비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타는 이처럼 여성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에 따라 그의 남성성 또는 여성성이 강화되거나 희석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인종주의에 따라 그는 지배자의 위치가 되기도 하지만 피지배자가 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를 모두 경험한다. 이로써 세 명의 여성 인물과의 관계를 통해 인종에 대한 생각과 젠더 정체성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그리고 인종에 따른 지배-피지

배 양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위치에 따라 가변적이 될 수 있으며 인종 정체성이 유동적인 것임을 뜻한다.

이처럼 이창래는 『제스처 라이프』에서 하타의 제국주의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부각시키며 남성 주인공의 한계를 드러내는 세 명의 여성 인물을 창조했다. 이 세 여성 인물들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인물들로 표현하여 이 소설은 여성에 관한 젠더 스테레오 타입을 해체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결과적으로, 『제스처 라이프』는 수직적 인종 관계와 젠더가 문화적 권력 관계이며 가변적이고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품이다.

인용문헌

- 고양성, 노종진. 「『네이티브 스피커』와 『제스처 인생』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존재의식과 정체성」. 『영어영문학연구』 47.2 (2005): 143-65.
- 김미현. 「타자의 지평과 사랑의 윤리—이창래의 『제스처 인생』에 나타난 "어려운 사랑"」. 『현대영미소설』 18.3 (2011): 5-29.
- 김영희. 「「군대 위안부」에 관한 연구—1980년대 「정대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국제학대학원. 2002.
- 김혁. 「20세기 미제국 행보의 역사적 회고」. 『한국세계지역학회』 23.1 (2005): 5-24.
- 나영균. 「『제스처 인생』: 신역사주의적 고찰」. 『현대영미소설』 7.2 (2000): 105-21.
- 박보량. 「『제스처 라이프』(*A Gesture Life*): 이민사회 속에서의 하타의 정체성 모색」. 『미국소설』 2.2 (2005): 127-49.
- 박찬구. 『생활속의 응용윤리』. 서울: 세창출판사, 2016.
- 사이드, 에드워드.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역. 서울: 교보문고, 2009.
- 안아람. 「이창래의 『제스처 인생』에 나타난 인종적 패싱과 트라우마」. 『영어영문학21』 29.4 (2016): 137-57.
- 이관수. 「이창래 소설에 나타난 식민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2.
- 이선주. 「이창래의 『제스처 인생』—패싱, 동화와 디아스포라」. 『미국학』 31.2 (2008): 235-64.
- 이소희. 「『제스처 인생』에 나타난 젠더화된 트라우마」. 『현대영미소설』 13.3 (2006): 133-56.
- 이수미. 「재미교포 작가의 위안부소설에 드러난 오리엔탈리즘—이창래의 『제스처 인생』을 중심으로」. 『人文研究』(*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51.0 (2006): 229-55.
- 이영옥. 「성 노예 모티프와 『제스처 인생』」. 『미국학논집』 35.1 (2003):

191-205.

이창래. 『제스처 라이프』. 정영목 역. 서울: RHK, 2014.

임진희. 「오리엔탈리즘과 아시아인의 정체성」. 『남서울대학교 논문집』 10.3 (2004): 159-213.

정혜옥. 「외상의 물질성과 이창래의 『제스처 인생』」. 『현대영어영문학』 51.1 (2007): 133-57.

케네디, 발레리. 『오리엔탈리즘과 에드워드 사이드』. 김상률 역. 서울: 갈무리, 2011.

Chang, Joan Chiung Huei. "A *Gesture Life*: Reviewing the Model Minority Complex in a Global Context." *Journal of American Studies* 37.1 (2005): 131-52.

Lee, Chang-rae. *A Gesture Life*. New York: Riverhead, 1999.